# 주말경제

Economy

■30대 직장인, 1억원으로 할 수 있는 공격적인 재테크 전략은?

# BRICs 펀드 주목 … 주식형펀드도 고려해볼만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Q** 시중은행에 근무하고 있는 36세 직장인으로 아내와 5살난 아들, 아버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어머님이 돌아가셔 아버님과 합가(合家)를 하면서 아버님 소유의 아파트는 1억원에 전세를 주고 임대보증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짧은 지식으로 펀드 등에 가입을 많이 했는데 제대로 자산운용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월 25만원 '종신보험' 적당…순수보장형 정기보험 차선책

## 보통예금 보단 고수익 MMF상품 갈아타는 것도 바람직

**A** 상담자 가정의 경우 박씨가 가계의 유일한 수입원이다.

전반적인 인상은 박씨가 가정의 커다란 위험에 대해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나 싶다. 부부의 암보험과 자녀를 위한 어린이 보험이 박씨가 가입한 보험(위험보장)의 전부다.

◇보험가입의 적정성부터 체크해야=펀드에 가입하고 예금을 하는 등 저축을 통해 자산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그 가장 밑바탕에는 어떠한 외부의 어려움과 위험속에서도 가족들을 든든히 지켜줄 수 있는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박씨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날 경우 남겨진 가족들은 어찌하겠는가? 수입이 끊겼으니 그 동안 모아놓은 자산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 따라서 더 늦기전에 정확한 재무설계를 통해 적정한 사망보험금에 대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연령 대비 월 25만원이면 적정한 종신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다. 종신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순수보장형 정기보험을 고려해보는 것도 괜찮다.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중대한 질병에 미리 준비하는 등 배우자에 대한 보장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박씨의 경우 세후 월수입의 50% 정도를 저축하고 있어 저축률은 매우 우수하며 예적금 구성도 원만한 것으로 보인다.

펀드상품은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는 상품이며 특히 외국 관련 펀드는 환차손의 위험도 가지고 있다. 박씨의 얘기처럼 공격적인 투자를 위한 선택으로 고속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국가들의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브릭스펀드 등을 선택해 가입한 것은 현명한 선택이다.

하지만 투자대상국이 신흥 경제개발국가인 만큼 정치 및 경제적인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행인 것은 과거 개발도상국 시절의 우리나라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주식시장의 등락은 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대세상승에 있다는 것이 투자에 대한 매력을 더해 준다고 할 수 있다.

◇해외펀드는 국내펀드에 비해 수익률이 10%이상은 돼야 가입할만=해외펀드 가입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점은 해외펀드에 대한 수익을 국내 세무관청에서는 배당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한다는 것이다.

국내펀드는 주식의 투자비율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에 비해 해외펀드는 수익전체에 대해서 15.4%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볼 때 환차손의 위험과 정치·경제적 불안요인 및 배당소득세 과세 등을 감안한다면 해외펀드의 수익률은 적어도 국내 펀드의 수익률보다 상당히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기예금 상품도 비교적 고금리 상품을 잘 선택 한 걸로 판단된다.

하지만 한가지 짚고 넘어간다면 자녀 명의의 정기예금 1천500만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세 면제부분도 감안해 가입 한 걸로 생각된다. 아직 어린 자녀 몫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정기예금 보다는 적극적으로 장기형상품인 주식형펀드로 바꿔주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단 향후 증가하는 수익까지 감안한다면 가입하기 전에 증여세 신고를 해두어야 한다.

이는 증여세 포괄주의에 입각해 향후 1천500만원이 투자가 잘 돼 1억5천만원이 될 경우 사전에 증여세 신고를 안했다면 세무서는 1억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미리 1천500만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고 그 증빙자료를 잘 보관해두면 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보통예금 500만원도 비상예비자금 용도로는 3개월 상당액이 부족하나 타 예금가입액이 있어 비상예비자금으로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현재 가입중인 보통예금보다는 입출금에 있어 큰 제약이 없으며 좀 더 고수익 상품인 MMF 상품으로의 전환이 바람직해 보인다.

또한 적립식펀드 상품으로 월 100만원씩 주식혼합형 펀드상품에 불입하고 있는데, 이는 포트폴리오 구성상 브릭스펀드 등 공격적 수익 추구상품인 해외 주식형 상품 계좌를 다량 보유하고 있으므로 투자자산의 안정성면에서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이렇듯 투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니 박씨는 부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다. 하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현재 진행중인 투자가 적합한 재무목표를 설정하고 그 재무목표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였느냐는 것이다.

현재 가입하고 있는 금융상품에 각각의 적합한 재무목표를 부여하는 작업을 먼저 시행하기 바란다.

아무리 작은 건축물을 세울 때라도 청사진 및 설계가 중요한 것처럼 기나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들의 꿈을 기반으로 한 재무목표를 세우고 그 재무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재무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리=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박씨의 자산현황

**변경전 재무상태표**

| 자 산 | | 부 채 | |
|---|---|---|---|
| 보통예금 | 500만원 | 임대보증금 | 10,000만원 |
| 정기예적금 | 14,670만원 | | |
| 거치식펀드 | 8,300만원 | | |
| 적립식펀드 | 1,150만원 | | |
| 주거용주택 | 32,000만원 (2채) | | |
| 계 | 56,620만원 | 계 | 10,000만원 |
| 순자산 46,620만원 | | | |

**변경후 재무상태표**

| 자 산 | | 부 채 | |
|---|---|---|---|
| MMF | 500만원 | 임대보증금 | 10,000만원 |
| 정기예적금 | 13,170만원 | | |
| 거치식펀드 | 9,800만원 | | |
| 적립식펀드 | 1,150만원 | | |
| 주거용주택 | 32,000만원 (2채) | | |
| 계 | 56,620만원 | 계 | 10,000만원 |
| 순자산 46,620만원 | | | |

**변경전 portfolio수익률**

| 구 분 | 금 액 | 기대수익률 | portfolio수익률 |
|---|---|---|---|
| 보통예금 | 500만원 | 0.1% | 0.00% |
| 정기예적금 | 14,670만원 | 4.5% | 2.68% |
| 거치식펀드 | 8,300만원 | 10.0% | 3.37% |
| 적립식펀드 | 1,150만원 | 10.0% | 0.47% |
| | | | |
| 계 | 24,620만원 | | 6.52% |

**변경후 portfolio수익률**

| 구 분 | 금 액 | 기대수익률 | portfolio수익률 |
|---|---|---|---|
| MMF | 500만원 | 3.5% | 0.07% |
| 정기예적금 | 13,170만원 | 4.5% | 2.41% |
| 거치식펀드 | 9,800만원 | 10.0% | 3.98% |
| 적립식펀드 | 1,150만원 | 10.0% | 0.47% |
| | | | |
| 계 | 24,620만원 | | 6.93% |

**변경전 현금흐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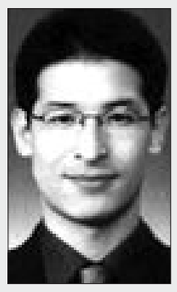
| 수 입 | | 지 출 | |
|---|---|---|---|
| 근로소득 | 500만원 | 생활비 | 130만원 |
| | | 보장성보험료 | 15만원 |
| | | 정기적금 | 50만원 |
| | | 적립식펀드 | 100만원 |
| | | 변액유니버셜 | 30만원 |
| | | 저축성보험 | 30만원 |
| | | 기타 용돈 등 | 120만원 |
| | | 누수지출 | 25만원 |
| 계 | 500만원 | 계 | 500만원 |

**변경후 현금흐름표**

| 수 입 | | 지 출 | |
|---|---|---|---|
| 근로소득 | 500만원 | 생활비 | 130만원 |
| | | 보장성보험료 | 40만원 |
| | | 정기적금 | 50만원 |
| | | 적립식펀드 | 100만원 |
| | | 변액유니버셜 | 30만원 |
| | | 저축성보험 | 30만원 |
| | | 기타 용돈 등 | 120만원 |
| | | | |
| 계 | 500만원 | 계 | 500만원 |

### 〈이번주 재테크 자문단〉

강원복CFP (하나은행)



최해영CFP (교보생명)

◇이번주 상담자 : 강원복CFP(하나은행), 최해영CFP(교보생명)

◇재산 리모델링 신청방법(신청시 연락처 기재)

▲이메일을 통한 신청방법 : chy69016@naver.com, bungy@kwangju.co.kr

▲팩스를 통한 신청방법 : 062)524-4187, 062)222-4918

▲'다음카페'를 통한 신청방법 : www.cafe.daum.net/fp-forum(광주FP포럼)

### 상속·증여세 포괄주의?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처하기 위해 민법상 증여와 구별해 행위나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의'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도 당사자간 계약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증여외에도 법령에서 열거한 유형의 자산 무상이전에 대해 증여로 보아 과세(유형별 포괄주의)하도록 했으나 법령에 열거되지 아니한 새로운 유형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2003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 종전 증여의 제규정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고 법령에 열거된 과세유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했다.